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금세기의 마지막해인 기묘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의 희망찬 첫발을 내딛는 2000년도의
市 정책 방향과 재정운영계획을
의원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난히도 어려운 일이 많았던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시기마다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열리는 정기의회는
지난 일년간의 시정성과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 이외에
새롭게 맞이하는 21C의 시정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10년 가까이 쌓아 온 성숙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새천년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어러분 !

기묘년은 18만 파주시민들에게 있어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한해가 되었습니다.
최고 1,032mm가 기록된 사상최대의 폭우로
무려 1천억원에 이르는 재산손실과 2만5천여 수재민의
생활기반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여
2년여 동안 계속된 IMF 고통을 어렵게 이겨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간에
시민들께서 큰 고통과 시련을 겪으신데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들은 심기일전하여
수재민의 생활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한달앞으로 다가 온 새천년의 시작이
밝고 희망찬 파주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99年の 成果와 教訓

올 한해 동안 우리시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더욱 단합된 시민의 결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21C 살기좋은 『으뜸파주』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을 모으면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은 의미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과정을 거쳐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면서 행정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고 사무의 자동화와
현업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작고 생산적인 체제(Slim化)로
거듭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산적인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외자유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년초부터 시장이 직접나서 독일, 미국, 덴마크 등지를
돌며 본격적인 세일즈 행정을 추진한 결과
많은 외국기업들이 우리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계속된 IMF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가정을 위해 올해도 총50억원의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3천여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왔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290개 중소기업에 516억원을 지원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3천5백명의 실직자가 새롭게 일자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고장 「파주사랑」 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범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하여 푸른파주가꾸기 사업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뒷받침할 도시재정비계획에 착수하여 지역균형개발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통일동산 2단계 사업으로 헤이리아트벨리(서화촌)와 고려충의관이 건립되고 있으며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 금파·오산·금송지방산업단지가 이미 착수 되었거나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어 21C 고도 정보산업사회,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선도할 도로건설사업으로

자유로당동IC·적성두지리간과 자유로문발리·조리면등원리간의 국도확장사업을 비롯해 지방도 송포·문산간, 봉일천·고양시계간 도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추진해 온 지역간도로망 확충사업과 도시간선도로등 15개 구간의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었으며 어려움을 겪던 民北收復마을 조성사업도 수일전 기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초환경시설에 있어서도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과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이 시험 가동된데 이어 침단쓰레기소각장이 착공되었고 금촌·문산·적성에 건설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본격적인 발주를 앞두고 용역설계와 시설인가등 제반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민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교양증진에 큰 몫을 하게 될 여성회관과 현대식시설을 갖춘 보건소가 문을 열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재활작업장이 준공되어 장애인재활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저소득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무의탁 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소일거리제공등
생계 보호차원이 아닌 자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과주가

21C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찬 도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여름 다시 상상을 초월한 폭우를 만나
문산시가지와 농경지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난을 겪었으나
30여 만명에 이르는 군·경·공무원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18만 시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의해
불과 2주여 만에 응급복구를 마치고 재기를 위한 투혼을
보임으로써 우리시민의 결집력과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큰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올해 제3회를 맞는 장단콩축제는

수해로 인해 침체된 문산지역의 시장경기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문산공설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3일동안 7만여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적인
농산물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00年度 市政興件과 課題

2000년도는

국가적으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매우 뜻깊은 해로써

“변화와 개혁, 신지식과 정보, 그리고 민족고유의 문화와
창조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21C를 맞이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경제번영과 정의사회를 실현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의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世紀초반에는 기필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
세계속에 초우량 국가건설을 향한 의지와
희망을 키워나가는 새역사 창조의 元年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 역시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동시에 18만 파주시민의 목표와
이상을 새로이 설정하고 수해로 인해 이완된 시민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데 주력하면서

새로운 투자가 살아나고 있는 경제상황과
남북교류의 밝은 전망 등 주변환경의 유리한 변화를
호재(好材)로 삼아 그 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으뜸파주의
비전들을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 나감으로써
새천년의 元年은 우리시가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떠오르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 1) 신지식 육성과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역점을 두면서
- 2) 완벽한 수방대책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균형개발로 파주 발전의 기틀을 잡아가는 동시에
- 3)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도시건설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4)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만족할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 5) 향토문화 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00년도의 파주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新知識 育成과 튼튼한 地域經濟基盤 造成

지식산업의 무한경쟁시대가 될 21C를 맞이하여
이를 선도할 창조적 지식기반을 중점 육성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民資·外資유치 노력이
실물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21세기의 국가들은

“지식국가건설”을 최대의 생존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기업,
그리고 공직사회가 신지식 사회로 눈 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대표할 지식산업으로

패션과 디자인 산업이 첫손에 꼽히는 이유를 보더라도
창조적 지식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실감케 하며
새로운 감각이 없는 상품이나 독창성이 없는 문화는
그 생명력을 잃어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과주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살려나가는 C·I·P 용역에 착수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고유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건축, 도로, 교량등 공공시설과 가로환경에 이르기까지
특색있는 조형미를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는 물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광역화·자동화전산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하여
읍면동사무의 기능전환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자체재원 능력도 없이

국가나 道의 재정지원만을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노력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내의 문제는 자치단체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일년동안 힘써 온 외자유치 경험을 토대로

○ 내년에는 탄현·금승리 일원에 우선 4-5개 정도의
외국첨단산업체를 유치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해외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과 공산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등 세일즈행정
에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 또한, 파주시의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교하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
통일동산 2단계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금승, 오산, 금파지방산업단지를 내년 중으로 완공시켜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진각관광지를 확장하여
청소년 수련·생태관광파크를 건설하고 희귀수목이 서식하는
「새천년 평화의 숲」 조성사업을 파주시에 유치하여
관광여건을 늘리어 가는 동시에

통일동산-독개다리체험관광-판문점-제3땅굴을 연계한
안보관광 벨트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기존의 「녹슬은 철조망」과 같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안보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6.25전쟁발발 50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한국을 찾는 6.25참전용사 등
내·외 관광객에게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

장단콩, 부추, 참외, 인삼, 청결미, 임진강담수어 등
우리지역의 토종과 명품을 꾸준히 발굴하여
장단콩축제와 같은 우리특산물 알리기 행사를 통해
판촉을 확대하고

건강식품관광단지와 농사체험단지, 어촌관광마을을
조성하여 농수산물의 관광자원화에 힘쓰는 동시에
농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를 지원하고 농업인재를
육성하는 신녹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完璧한 水防對策과 地域均衡開發戰略

지역개발정책은

우선, 수해방지를 위한 치수대책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확정단계에 있는 파주도시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21세기 파주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파주시민이 수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확정된 1,453억원의 수해대책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
하여 일부 대규모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우기전까지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수해가 극심했던 문산지역에는
배수펌프장 신·증설, 문산시가지 순환도로 축조,
동문천 미개수구간 마무리등 384억원을 집중투자하고
통일로 및 경의선 철도승상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해 나가는 동시에 (중앙예산 660억원 별도투자)

곡능천정비사업 마무리, 금촌·봉일천

배수펌프장신설등 기타 지역에 1,069억원을 투자하고

시의회 수해특위에서 조사한 수해대책사업과

수재민의 대출이자 보전을 위하여 시비 150억원을

별도로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21C 파주시민의 희망이 담긴

파주도시기본계획은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중앙의 최종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만,

승인전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의 골격에 맞춰

투자수요가 몰리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21건 가운데

봉일천·고양시계간 도로확장,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

법원우회도로 개설사업등 10건은 내년에 마무리하고

통일동산진입도로개설, 내포·덕은간도로확장,
파주상수도확장, 금촌·적성·문산하수종말처리장,
문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
11건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동I·C~두지리구간의 국도37호와
자유로문발리~조리면 등원리간 국지도 56호 확·포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교하미니신도시 건설, 경의선전철복선화 사업과
물류기지건설, 문산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市民 삶의 質 向上과 環境親和都市建設

계층간 차별의 폭을 최소화하는 복지시책은
인간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맑고 푸른 환경은
건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개발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음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파주시정의 궁극적 목표이자
18만 시민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 인구의 70%나 되는 노인, 장애인, 여성, 소년소녀가장 등 노약계층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들이 전문성을 키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 전문여성양성과정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들에게도 기초 질서지키기와 같은 선도활동과 짚·풀공예품생산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이미 18동을 마련한 효친아파트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 무의탁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하여 중·고학교를 순회하며
청소년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예술제·음악회 등
건전한 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열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문산지역에 현실감각에 맞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돕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지원형 취로사업과 장학사업, 자활·자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 일에 주력하여
환경정책의 효과가 시민들 피부로 느끼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미 시험가동에 들어간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실용화시키면서 건설중인 침단쓰레기 소각장의 조기 준공과
금촌·문산·적성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소중한 젖줄인 임진강의 수질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 파주시와 환경단체가 나서
수질오염원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수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임진강수중생물표본”을 제작하여
여러 곳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우리의 산과 강

그리고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市民満足」의 成熟한 自治行政 具現

우리사회가 아무리 첨단·정보화 사회로 변한다해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작은 미소와
행동이 뒤따르는 성실한 친절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백화점이나
다른 시청의 민원실을 찾아다니며 친절봉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 市 민원실에
친절도우미를 배치하는등 3S운동을 실천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나 하나 고쳐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주요시책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포럼게시판」을
운영해 나가는 동시에 민원후견인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이
직접 후견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 행정서비스 현장을 확대제정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공개 측정하여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생활민원기동봉사대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관공서의 울타리를 헐어내고
담장공간에 수목과 잔디를 심어 시민휴식공간으로
꾸며나감으로써
공직자나 시민모두가 스스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성숙한 자치행정의 일원으로 함께 노력하는 격의 없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郷土文化 繼承・發展과 生活體育活性化

우리의 전통과 향토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것은
후손에게 명예를 남기는 일이며 건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미래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지혜입니다.

우리시는 향교와 서원, 왕릉을 비롯하여 산재된 문화제가
수없이 많고 마을 마을마다 선현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향의 고장입니다.

그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문화유적지들을 짜임새있게 정비해 나가고자
「문화유적지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곡, 황희, 윤관 등
위대한 선현들의 일대기를 영상에 담아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2세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선현의 얼을
소중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촬영을 마친 자연마을 전경사진을
화보로 제작하여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
올해 큰 성과를 거둔 짚·풀공예품 공모전을
농경문화축제로 발전시켜 짚·풀공예품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토속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총과주시지부를 중심으로
술이홀예술제·임진강가요제·서예전시회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토록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과주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이미 널리 알려진 율곡문화제를 전국 규모의 종합문화·
예술행사로 격상시켜 과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축구, 테니스, 게이트 볼, 배드민턴 등 종목별 동호인 단체를
꾸준히 육성하고 중앙 또는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태권도 수련원 건립계획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이미 대중 스포츠로 보편화 되고 있는 골프장을 통일동산
주변에 건설하여 가족단위 레저타운으로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주공설운동장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年度 財政運營方向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투자사업은

1) 수해복구사업

2) 수해예방대책사업

3) 계속사업마무리 順으로 재원을 배분해 나가는 동시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은

가급적 外資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사정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파주시의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1,9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규모면에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298억원이 증가한 것이지만

이는 수해복구비등 국·도비지원액이 포함된 예산으로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의 증가는 17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못하고
시급한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공시설의 관리전환을
계속 확대하여 불필요한 행정경비를 줄여 나가면서
보존가치가 없는 市有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득과 직결되는
경영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동시에 외부자본유치 노력을 본격화하여
부족한 재정수요를 보충해 나가는 한편,

택지개발, 공단조성, 관광자원육성과 같이
장기적으로 재정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영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일상경비에 33%를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로 67%를 배분하여 일반행정비에 353억원,
사회개발비에 673억원, 경제개발비에 383억원, 민방위등
기타 경비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잠시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천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맺 음 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설명드린 2000년도 파주시정의 정책기조는
단순한 한 해의 업무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천년의 첫발을 내딛는
18만 파주시민의 희망과 용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기가 바뀌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인식을 함께해야 합니다.

지나간 1세기동안 우리 민족은 두 번씩이나
주권을 강점 당했습니다.
세기초반에는 일제에 의해 36년간 국권을 빼앗겼었고
세기말에는 IMF에 의해 경제주권을 잃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한 후에 지혈에 급급하면
언제 또 다시 민족의 수난이 되풀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원 여러분 !

다가올 새로운 천년은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신지식산업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外勢에 의해 우리민족이 다시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온 새로운 천년의 시작은
임진각에 설치한 평화의 종이 울리는 순간
온 국민의 시선이 우리 파주로 몰린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 !

저와 1천여 파주시 공직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18만 시민의 영광과 21C 파주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 11. 25

파 주 시 장 송 달 용

재정여건과 예산운용 기본방향

□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 세입부문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 자동차세가 늘고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증가와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동산 관련 도세징수금 수입, 노상주차장사용료,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 3년 연속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 공무원 인건비등 제경비와 지방채 상환등 필수 기준경비가 자체수입의 55.3%를 상회하고 있어 투자비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야만 하는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치수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 ① 가급적 신규사업이나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가용재원은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 ②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소모성 행사비용은 과감하게 축소해 나갈 방침임
- ③ 또한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재정일몰제도」 운영하여 단위사업 예산의 거품을 빼고
- ④ 절감된 예산은 저소득 계층의 복지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임.

□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5,951백만원으로
'99당초 예산보다 29,855백만원이(17.9%) 증가한
규모입니다.

○ 이중 본청소관이 95%인 143,562백만원,
읍면동소관이 5%인 7,845백만원이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1,407백만원,
특별회계가 44,54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예산(안)	'99당초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합 계	195,951	166,096	29,855	17.9
일반회계	151,407	122,478	28,929	23.6
특별회계	44,544	43,618	926	2.1

○ 재정자립도는 51.9%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사업중 도지원 부분만 편성되어
자립도는 다소 변동 될 전망입니다.

[일 반 회 계]

□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4,661백만원으로
'99년보다 1,553백만원이(4.6%)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43,836백만원으로
'99년도 보다 16,097백만원이(58%) 증가되었습니다.
-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이 34,969백만원,
교부세가 23,003백만원입니다.
-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5,349백만원으로 23%이며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67,330백만원으로 45%입니다.
- 경제개발비는 38,293백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 민방위비 1,694백만원과 지원·기타경비
8,74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단위 : 백만원)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보 조 금	교 부 세	지정재원
151,407(100%)	34,661(23%)	43,836(29%)	34,969(23%)	23,003(15%)	14,938(10%)

【세출】

(단위 : 백만원)

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 방 위 비	지원및기타경비
151,407(100%)	35,349(23%)	67,330(45%)	38,293(25%)	1,694(1%)	8,741(6%)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 총규모는 '99당초예산보다 28,929백만원이 증가한 151,407백만원으로
- 인건비와 일상경비등 경상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99년도 보다 127백만원이 감소한 37,86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사업예산에 101,10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이중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이 66,086백만원, 자체사업이 35,023백만원이며
- 기타채무상환 6,029백만원과 예비비등 6,40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행정부문에 35,349백만원(일반회계의 23%)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 의회운영비 411백만원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300백만원
- CIP개발을 위한 용역비 100백만원
-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778백만원
- 읍면동 맥스장비 구입 220백만원
-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 1,000백만원
- 문산읍 청사진입로 토지매입비 279백만원
- 파주시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백만원
등 입니다.

□ 사회개발부문에는 67,330백만원(일반회계의 45%)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 교육·문화에 8,384백만원으로

- 문산내포리 및 적성체육공원 시설공사 250백만원
 - 공설운동 건립 추진 5,600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00백만원
 - 도체전 출전지원 120백만원
 - 문화재보수·정비(6개소) 389백만원
 - 민북지역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80백만원
 - 칠중성 발굴조사 용역비 60백만원
 -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61백만원
 - 제13회 울곡문화제 개최 60백만원
 - 6.25전쟁 50주년 기념 안보관광기념품 제작 80백만원
-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보건생활환경개선에는 34,316백만원으로서

-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03백만원
-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8,490백만원
-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6,210백만원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240백만원
- 환경기초시설 수해대책사업 900백만원
- 쓰레기장처리장 주변 주민지원 사업(12건) 1,688백만원
-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774백만원
-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476백만원
- 간이상수도 개보수(14개소) 833백만원
- 하수관거 준설사업 100백만원
- 오·우수관 오점방지사업 842백만원
-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자본전출 등 입니다.

○ 사회보장에는 16,477백만원으로서

- 장애인 복지사업(생계보조비등 34건) 2,695백만원
- 저소득층 주민 보호(거택보호비등 6건) 5,962백만원
- 저소득노인, 아동시설보호(교통비등 45건) 5,021백만원
- 보육시설 지원(생계비등 14건) 1,375백만원
- 청소년 복지(공부방운영등 20건) 178백만원
-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270백만원
- 노인복지기금적립 100백만원
-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 200백만원등입니다.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8,153백만원으로서

- 국토이용계획 변경 실시설계비 100백만원
- 법원읍 소도읍 개발사업 320백만원
- 도시계획 재정비 수치지형도작성 200백만원

- 도시간선도로망 확충(2개소) 666백만원
-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920m)
- 문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265m)
- 문산순환도로개설(수방대책사업 시비부담금) 1,824백만원
- 시네마극장~수영장간 도로개설 용지보상비 718백만원
-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30백만원
- 문화마을 조성사업(4개마을) 191백만원
- 소송폐소 토지매입비(193m²) 251백만원
-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도로포장 13km) 1,000백만원
- 취약지정비사업(1개마을) 89백만원등입니다.

□ 경제개발부문에는 38,293백만원(일반회계의 25%)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 농수산물개발에 12,301백만원으로

- 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피양지설치사업(6.3km) 703백만원
-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융자이자 보전금 646백만원
-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30개소) 285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38개소) 156백만원
- 민통선지역 홍삼재배단지조성사업(1개소) 144백만원
- 토양개량제 공급사업(2종) 344백만원
- 간이기반 경지정리사업(1개소) 296백만원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4개소) 340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10개소) 2,184백만원
- 수출전업농 육성사업(4개소) 160백만원
- 농촌정주권 개발사업(2개면) 1,604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1개소) 3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개발에는 2,812백만원으로서

- 공공근로사업 2,119백만원
- 중소기업수출상품 해외시장개척지원 30백만원
- 수해상가 특별사업자금 이차 보전금 300백만원
- 고용촉진훈련사업(55명) 72백만원
- 학생벤처사업지원비 50백만원등입니다.

○ 국토보존개발에는 21,602백만원으로서

-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107건) 10,245백만원
- 갈곡천 개수사업(30km) 2,000백만원
- 배수문 유지관리사업(171개소) 342백만원
- 하천제방·하상준설 유지관리사업(270개소) 281백만원
- 골재채취대행 위탁 생산비 1,590백만원
- 골재채취 하천 사용료 723백만원
- 자유로 유지관리비 551백만원
- 市道 간선도로망 확충(3개소) 1,500백만원
 - 내포~덕은간(4.2km)
 - 성동~금산간(2.5km)
 - 봉암~파주간(1.8km)

- 市道채불용지매입(18필지) 290백만원
- 市道 및 농촌도로 교량유지(100km) 155백만원
- 도로소파 보수, 덧씌우기 241백만원
- 산림욕장 조성사업(1개소) 400백만원
-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 220백만원
- 재해대책기금 적립 239백만원등입니다.

○ 교통관리부문에는 1,578백만원으로서

- 신호등 설치·보수비 182백만원
- 농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 68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333백만원
- 버스정류장, 승강장 설치 사업(70개소) 104백만원
- 용산~문산간 경의선전철사업 시비분담금 5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방위부문에는 1,694백만원(일반회계의 1%)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 민방위 교육장 건립 사업마무리 856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59백만원

○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3개소) 50백만원

○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1개소) 50백만원등입니다.

☐ 지원 및 기타경비는 8,741백만원(일반회계의 6%)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 '99수해복구대책사업등 21건의 채무상환 6,028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12백만원

○ 예비비 1,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종(공기업상수도사업포함)의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44,544백만원입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49백만원으로

- 민간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등 94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 차입금 이자 및 원금 등 931백만원, 예비비 1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4,392백만원으로

- 세외수입 11백만원, 국고보조금 3,499백만원, 도비보조금
88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 일반운영비에 7백만원, 저소득주민의료보호 및 반환금에
4,385백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28백만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 24백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50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 등에 52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규모는 4,104백만원으로

- 환지청산금 수입 3,53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7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 금촌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에 4,086백만원, 일반운영비에 1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86백만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8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자금융자금으로 86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392백만원으로

- 정상적세외수입 40백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등 1,35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 일반운영비에 18백만원, 주차구획선 도색 40백만원, 적립금과 예비비에 1,334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73백만원으로

- 정상적세외수입 7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9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 경영수익사업 설계비와 시설투자사업 등에 1,173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819백만원으로

- 이자수입 36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45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 일반운영비에 9백만원, 문발2지구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30백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3,780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제40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 사업, 계속사업 마무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